

따뜻한 법률복지국가를 위한 희망의 아이콘

정 다 은

- 1986년 9월 생
-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법대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학부생활을 마치고 모교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27살 여성입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훌륭한 역량을 지닌 여러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유능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멋진 동학들이 있음에도 구태여 부족한 제가 나선 이유는, 첫째로 아직 여러 모로 부족한 “1년차 로스쿨생”이 체득한 실무수습의 활용방법과 시행착오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고, 둘째는 아직 로스쿨 진학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다수의 법학사들의 진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대체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고 계신 듯합니다. 학부 때와 같은 교정에서 같은 교수님들의 지도아래 전문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저 나름의 시각에서 보건데, 법학부와 로스쿨의 커리큘럼이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인 점은 “전문성을 띤 다양한 과외활동과 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실무수습 과정

은 로스쿨의 커리큘럼 중 단연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로스쿨 생에게 실무수습이란 실무를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로써 그 의미가 큼니다. 또한 실무수습 기관의 지도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이 점도 있습니다.

실무수습에 참여하는 방법은, 학교 차원에서 수습생을 선발하여 협약기관에 파견하는 방법과 개인이 실무수습 대상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채용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80여 개의 협약기관 및 로펌을 포함한 변호사 사무실이 실무수습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 선발의 방법을 통해 동계 실무수습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실무수습을 하였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담당하는 대표적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된 것은 지난 1년의 로스쿨 생활 중, 판례의 결론을 짚어 맞췄던 1학기 기말고사 보다 훨씬 더 큰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II. 실무수습의 의의와 그 선발과정

로스쿨의 시간은 손살같이 지나갔고, 열정적이었던 fresh man은 이미 지쳐있었습니다. 3기부터 도입된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정규 학사일정을 따라가기조차 녹록치 않았습니다. 또한 로스쿨제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인지에 대한 갈등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차에게 찾아온 성급한 슬럼프와 그로 인한 복잡한 마음을 다잡는 데에 실무수습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건과 송무를 접해보는 것은 “더 열심히, 더 잘 하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 자기가 어떤 사건에 조금 더 예리한 시각을 가졌는지, 앞으로 학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느 부분에 더 정력을 쏟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쩌다 칭찬이라도 받는 날에는 학기 중에 아등바등하며 공부했던 저 스스로가 얼마나 기특한지, 넘치는 자기에와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실무수습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고 공정합니다. 실무수습 공고가 나면 희망자는 당해 기관이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지원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에서 적합한 원우를 선발합니다. 보통 선발일로부터 파

전일까지는 짧게는 2주일, 길게는 1달 이상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실무수습 대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본적 소양 정도를 습득하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기 중에 다루지 못한 과목 중 활용률이 높은 가족법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수습생을 모집하는데, 전남대학교에 배정된 인원은 전·후기 2차례의 수습회차 동안 총 5명이었습니다. 각 대학원별로 선발된 인원은 해당 대학이 소재하는 권역 내의 지부·출장소에 배치되는데 저는 광주지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Ⅲ. 실무수습을 통해 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하루

제가 근무했던 광주지부는 광주지방검찰청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법조메카인 준법로에서부터 법원과 검찰청입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첫 출근일, 마치 법률사무소의 숲과 같은 그 길을 헤치고 검찰청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법학전문 대학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재학생인 저 역시 똑같은 기대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실습의 여러 교육과정을 거치며 서서히 희망과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고객지원팀과 구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검찰청 민원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1층의 천장이 뚫려있어 2층에서 1층 민원실의 상황을 훤히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2층 복도에서 1층 민원실을 지켜보곤 하였는데, 법원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들을 보는 것은 법률전문가로서 조력을 구하는 사람을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어렵듯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업무 흐름은 이렇습니다. 고객지원팀의 상담을 거쳐 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 판단되면 구조부로 사건이 넘어오고 변호사님과 공익법무관님들이 소송을 진행됩니다. 오전 9시부터 고객지원팀의 상담이 시작되는데, 은행과 같이 순번대기표를 발급하여 창구별로 진행되는 고객 상담은 많게는 하루 80건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창구마다 쉴 새 없이 내담자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고객지원팀이 사용하는 공간은 하루 종일 붐빍니다. 상담을 통해 구조가 타당하다 생각되어 구조부로 넘어온 사건은, 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지부장님의 결재를 받아 쟁송에 들어갑니다.

종일 설 새 없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등 격무와의 전쟁을 치르는 고객지원팀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님들과 공익법무관님들 역시 각자 맡은 사건의 당사자를 만나고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거의 매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는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짧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출근했던 날에는 모두가 바쁜 이곳에서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제 마음가짐조차 하나의 구조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구조공단의 조직과 수임사건의 수를 고려하면 광주에 소재하는 유수의 로펌과 견줄 정도의 규모입니다. 30여명에 이르는 광주지부의 구성원들이 업무 마감시까지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쉼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가 운영 기관의 특성상 흔히 나타나기 쉬운 나태한 업무수행과 직권남용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만난 모든 이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며 각자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동료들 깊이 신뢰하며 정직하게 생활하는 멋진 분들로, 개개인 모두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유능한 재원이었습니다.

IV. 커리큘럼

구조공단의 커리큘럼은 사법연수원 출신 시보를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구성이라 들었습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법률을 통한 복지국가실현에 기여한 국가운영 기관답게 매우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습 내용은 민사계열과 형사계열을 나누어 상담, 소장, 변론준비서, 답변서와 같은 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포함한 송무 체험과 실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기록 검토와 소송전략 회의 및 법정 동석 등으로 구성됩니다. 2주라는 짧은 수습시간동안 개괄적으로나마 구조공단의 모든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기획함으로써, 법조인의 기본소양과 실무에서의 문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무수습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보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커리큘럼의 세부 내용별로 서술하겠습니다.

「상담」

상담은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출근 날부터 고객지원팀에서 직원들의 상담내용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책상에 앉아 파티션 너머 베테랑 직원 분들의 상담내용을 듣는 것은 실무 수습 마지막 날까지 제가 가장 즐기는 일과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한 직원 분들의 상담기술은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베이직한 케이스에서 한참은 벗

어나 보이는 실무의 법률관계 앞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낮을 놓게 되는 1년차 로스쿨생’과 ‘쟁점이 되는 부분을 척척 집어내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화려한 상담기술을 자랑하는 구조공단의 직원’간에 설치된 파티션은 그야말로 “넘사벽”-체 또래 말로,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즉 극복 할 수 없는 차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부장님과 부장님께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고객지원팀의 엄청난 상담기술에 대해 말씀하시며, 실무수습 기간 동안 가장 큰 배움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고객지원팀의 상담을 듣는 것이라 지도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날부터 체계 상담업무를 실습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구조공단의 도움을 기대하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중압감을 느낀 저는 책을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상담을 자청하였습니다. 실습 종료일까지 ‘채권상 이혼의 가부’,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재산명시신청제도의 이용방법’,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와 민사적 해결 방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구제 방법’, ‘채불 퇴직금 청구’ 등 총 6건의 사이버상담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작성한 의견서는 지도관님의 검토를 거쳐 고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는 후에 기록검토와 송무 관련 실습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정 동석 방청」

법정 동석 과정은 모두 오후에 열리는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오전에 지부장님께서 대상 사건의 기록을 주시면 그를 검토하여 나름의 생각을 정리한 후 법정에서 동행하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지도관님으로부터 그날의 재판 내용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습기간동안 수차례 법정방청을 하였는데 그 중 몇 개의 케이스를 들어 그 실무수습의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여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형사사건으로 ‘취직을 미끼로 타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50대 남성’을 대리한 사건의 재판에 동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정황상 죄책이 명백한 경우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때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 변호사구나’라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구조공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경험을 거친 지금은, 분명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라는 직업은 보통

의 강건한 사람으로써는 수행하기 힘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가사사건으로는 남편이 아내 몰래 자녀들을 형님 내외에게 입양 시킨 사건으로 아내가 제기한 입양취소소송을 대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의 내용 탓에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다행히 형님 내외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아 수월히 해결 되었지만, TV나 스포츠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신기한 것이 법원을 찾는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아내의 소송 대리를 맡아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가 소송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출석하여 재판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쟁송에 이른 모든 사건들이 심적인 에너지 소모를 동반하는 것이지만, 가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사이에 둔 당사자간의 언쟁으로 그들의 감정이 여과 없이 전달되는 탓에 재판을 마친 법무관님의 얼굴이 민·형사사건 때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날의 재판 이후 새롭게 쟁점 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시고 저는 기록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여쭙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변호사님이 그에 대한 가부를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관련 서류의 법원 제출 및 접수 업무」

소송을 위한 인지세 납부와 소송관련 서류의 법원 제출 등을 담당하는 직원분과 동행하여 실습을 하였습니다. 사실 로스쿨 진학 후, 봉사활동을 통하거나 지인들의 요청으로 법률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나 판례에 대해서는 책을 찾아보고 동기들에게 물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소송절차에 관한 문제 등 실질적 소송수행 방법을 물을 때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어 곤란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소송관련 서류를 편철하고 실제 법원에 접수하는 과정 등을 수행해 보면서, 서류의 요식은 물론 법원에 접근하는 마음 또한 한결 편해졌습니다.

「소송서류 작성」

민사소송서류 작성 실습으로 “연대보증책임으로 인한 강제이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위한 소장과 준비서면 및 증거신청서를, 형사소송에 대한 실습과제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고객의 변론요지서”와 “피고인 신문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서류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와 계약당시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한 금원의 성격”을 주요 문제로 하는 법률자문요청에 대한 상담의견서를 작성해 보는 실습과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모든 결과물은 변호사님과 법무관님께서 세심하게 첨삭해 주셨고, 부족함을 많이 드러낸 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록 검토와 전략회의」

수습기간 동안 매일 많게는 하루 3건 이상의 실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배려 주셨습니다. 종결된 사건의 기록을 주실 때에는 어떤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강학상의 케이스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을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퇴근 1시간 전 쯤에 기록을 반납하며 변호사님께 제 나름의 결론을 제출하면, 변호사님의 생각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신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빈틈이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있는지 찾아오도록 하셨으며 역시 퇴근 전에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로스쿨제도의 취지가 법률복지사회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그 목적과 기능을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는 실무수습에 참여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단 정규 커리큘럼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저 역시 커리큘럼 외적인 요소에서도 큰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수습에 참여해 보면 보통 실무수습 과정에서 부여되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급급하여 그 외적인 요소들을 미처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동일한 기간 동안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V. 사람, 선생님, 연예인

수습기간 체계 최고의 선생님과 최상의 교재는 구조공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조공단은 다른 공기관보다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많이 요구되는 직장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인지 구조공단의 사람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모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매 순간 칼 같은 업무 처리로 만화 속이나 존재할

법한 구조공단의 아이콘 지부장님부터 휴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구조부 막내까지 구조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다양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자, 낯을 잃고 바라보게 되는 아이돌 스타와 같았습니다.

특히 법원에 앞서서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변호사님의 가르침과, 감정적 소모가 우려되는 경우 수임사건에서 한발자국 떨어져 변호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무관님의 말씀은 수습을 마친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무수습을 하시는 분들 역시 제가 만났던 사명감으로 뚝뚝 뚝뚝 최고의 선생님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VII. 글을 마치며

현재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주로 “돈으로 자격증을 사는 곳”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조공단에서 만났던 분들의 뛰어난 능력을 돈으로 사고자 한다면 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고, 거금을 지불한다 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하는 사실은 이 글 읽고 계시는 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로스쿨 학생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법률 전문가들이 지금의 능력을 갖추기까지 투자해야만 했던 시간과 노력을 똑같이 치르고자 로스쿨 학생의 대부분이 각고면려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3년이라는 짧은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현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서비스로의 손쉬운 접근을 목적으로 한 로스쿨 제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이 질 낮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로스쿨 학생들도 명백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도 연수원 출신 법조인들과 함께 고객들의 선택 보기에 들기 위해 각자의 역량에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무수습을 마치고 나니 “더 용기내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더 많이 배울걸.” 하는 후회가 컸습니다. 인턴이 아닌 공기관으로의 실무수습은 채용과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펌으로 실무수습을 나가는 동기들을 보면,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때문에 부족함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배운다는 자세로 가르침을 욕심껏 구

할 수 있는 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은 채용의 전단계인 인턴십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득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기관 실무수습에 참여하시는 로스쿨생 여러분, 실무수습생이 아직 배우는 학생으로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으로 실무수습을 나가든지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더 자주 질문하고 더 많이 부딪혀보고 더 많이 깨져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변호사가 될 자신이 없다는 저의 말에 진심을 담은 응원을 해주신 박왕규 지부장님, 부족한 서면임에도 제가 용기 낼 수 있도록 매번 칭찬할 부분을 찾아주셨던 박진성 부장님, 번잡스럽게 드나드는 제게 날마다 수고했다는 퇴근인사를 건네주시던 고객지원팀장님, 수업료를 내지 않는 제게 기꺼이 가르침을 주신 공익법무관님들과 고객지원팀 및 구조팀 직원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